

30-40대 싱글여성의 일상생활(의식주, 소비 및 여가 생활)의 의미 분석 - 인구교육의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

왕석순* · 전주람** · 류경희***¹⁾

전주대학교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 창원대학교 교수***

Thematic Analysis of Everyday Lives of Single Women in Their Thirties or Forties - Implications for Population Education -

Wang, Seok Soon* · Jun, Joo Ram** · Ryu, Kyung Hee***¹⁾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Dept. of School of General Education, University of Seoul***

*Dept. of Family Welfare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analyze thematically everyday lives (food, clothing, shelter, spending, and leisure) of single women in their thirties or for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veryday lives of single women could be grouped into five main categories of themes which may be labeled as 'Self', 'Relationship', 'Survival', 'Preparation for the future', 'Freedom and hidden side of the freedom'. As for the first category of themes 'Self', three sub-themes have been found including "Only for me", "Perfection of self", "My own style". Next, as for the second category 'Relationship', two sub-themes have been found including "With her family (For her family, still under the protection of her family)", "With other people (Pleasures with people, Comfortable with single friends,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As for the third category 'Survival', three sub-themes have been found including "Health", "Safety", "Practice of living alone". As for the fourth category 'Preparation for the future', three sub-themes have been found including, 'Good spending', 'Savings for later life', 'Leisure in later life'. And finally, as for the fifth category 'Freedom and hidden side of the freedom', two sub-themes have been identified including "I am free because I'm alone (Freedom from bondage of my family, Compensation for being alone)", "Hidden side of the freedom (Fear, dislike feeling and insecurities due to being alone, Overcoming loneliness or solitude)". In all, there are eighteen sub-themes to consider.

1) 교신저자: Ryu, Kyung Hee, 20 Changwondaehak-ro, Changwon-Si Gyeongnam 641-773, Republic of Korea
Tel: 055-213-3542, Fax: 055-213-3549, E-mail: ryukh@changwon.ac.kr

2) 이 논문은 2015-2016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presented some conclusions on the Everyday Lives of Single Women in their thirties or forties. We also presented som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on population education and future research.

Key words: 싱글여성(Single Women), 일상생활(Everyday Lives), 인구교육(Population Education)

I. 서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과 이혼 통계 결과, 혼인건수는 30만 5500건으로 2013년보다 1만 7300건(5.4%)이 줄어 30만 8600건을 기록했던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Donga Ilbo, 2015). 또한 지난 2010년 말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414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오는 2020년 588만명, 2030년 709만명에 달할 전망이다(Newsis, 2014). 서울시가 발간한 ‘통계로 본 서울 가족구조 및 부양변화’를 보면 서울시내 1인 가구는 2000년 16.3%에서 올해 27.0%, 2030년엔 30.1%로, 전체 가구구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늘어나는 ‘나홀로족’으로 인해 15년 후 서울의 ‘가족지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Kyunghyang Shinmun., 2015). 이는 결혼 적령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미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증가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전망하게 한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사회적 용어는 싱글 외에도 독신, 미혼, 비혼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싱글’이라는 용어를 독신, 미혼, 비혼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싱글의 개념을 보면, 싱글은 예전처럼 결혼 전의 단계인 미혼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즐기는 독신이라는 점에서 기존 세대와 대비된다. 싱글은 결혼이라는 틀에 자기를 맞추기보다 자유와 이상과 일을 더 중요시하고 당당하게 살려는 욕구가 강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신주의자와 같이 결혼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데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결혼을 필수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Jeong, 2009). 즉, 싱글이란 이혼, 사별, 별거 등을 포함하여 현재 결혼 상태에 있지 않고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Schwartz & Scott, 2006; Kim, 2013 cite)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독신, 비혼, 미혼이라는 용어보다는 거부감 없

이 많이 지칭되고 있는 ‘싱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아직 20대 여성은 결혼을 유보한 계층으로서 30대나 40대 여성과는 다른 연령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50대와 60대 여성 인구의 경우에는 발달 주기 상 성인기가 아닌 중년기와 노년기로 구분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싱글여성이라 함은 30대와 40대의 결혼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싱글 여성이라 함은 부모님과 생활상 주거 독립을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30~40대 미혼 여성을 말한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싱글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은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이 아닌 싱글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했고, 성가치관과 결혼관의 변화는 결혼의 당위성을 저하시키고 결혼과 독신으로서의 삶 속에서 선택의 가능성을 낳았다(Park & Kim, 2006). 특히 현대사회는 개인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개성이 존중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점점 더 ‘나’라는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가정 속에서도 나의 희생보다는 현재의 내 삶이 더 중요해지면서(Chang, 2002), 결혼보다 개인의 행복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개인주의적, 편의주의적 혹은 자유주의적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Park & Kim, 2006).

2005년 6월 조선일보와 리서치플러스가 싱글족 3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강(44%), 돈(19%), 자아실현(15%), 가족(12%), 결혼(7%) 순으로 꼽았으며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시되던 가족과 결혼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에 주요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몰려있음을 알 수 있다(Jeong, 2009). 또한 전문직 독신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으로 자아실현과 확고한 정체성 확립,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꼽았으며, 결혼을 선택이라 여기며 싱글생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나타냈다(Lee & Hwang, 2003).

이와 같이 싱글로서의 삶은 점진적인 문화적, 사회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며, 결혼관에도 변화를 나타내게 되어서 나 혼자만의 삶이 가족과 함께 영위하는 삶의 유형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유형으로 보편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Sim, 2003). 이제는 싱글로서의 삶이 결혼과 또 다른 삶의 선택 유형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었고, 싱글은 단순히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의 일시적인 단계가 아니라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의 한 형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Kim, 2007). 라이프스타일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자신과 주위환경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삶에서 특히 주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생활양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한다(Seo & Baek, 2006). 또한 라이프스타일은 이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개인의 행동양식에 따라 주관적 의미와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집단에 대하여는 객관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복합적 표현양식이라 할 수 있다(Seo et al., 2005). 일반적으로 싱글이 추구하는 생활양식은 자유로움, 당당함, 자기개발과 자아실현, 자신의 일, 편리함, 현재를 즐길 수 있는 현재 지향적 삶 등으로, 이들은 외모와 유행에도 민감한 편이며 무엇보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만족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Kim, 2003)는 이미지로 대변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이미지가 실제 싱글들의 일상생활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즉, 외면적으로 삶을 즐기거나 향유하는 것으로 이미지화되어 가는 싱글 생활은 결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사회현안을 가진 우리 사회에서 규명해야 할 중요한 실재라고 할 수 있다. 즉 각종 대중매체에서 과잉 일반화되어 가는 화려한 싱글생활의 이미지로 인해 결혼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생애설계교육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인구교육(Wang & Lim, 2014)의 중요한 측면은 이처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가지는 실제 모습을 규명하여, 개인이 가장 행복한 삶을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가 양산하고 있는 싱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화려한 이미지 대신에, 실제 하는 모습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평상시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은 대개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의복, 식품, 주거 공간과 같은 의식주 생활을 의미하며 생활의 기본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wikipedia, 2015). 또한 이곳과 지금이라는 시공간에 처해 있는 실천적 관

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당연시된 관례화된 세계이다(Jang, 2004). 그러나 더 넓게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 범주에는 의식주 활동 외에도 일, 여가를 취하고 상호작용에 적극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행위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하기에(wikipedia, 2015)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개념에 의식주 활동 외에도 소비와 여가활동 등을 포함시켜 싱글 여성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라이프스타일의 한 형태인 싱글들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의식주생활, 소비 및 여가생활 등이 결혼을 선택한 삶과는 다른 독특한 삶의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 사료되기에, 30-40대 싱글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상생활의 특성이 무엇인지 심층면담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이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생애에 걸쳐 구성해 가는 생애설계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인구교육에 주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싱글 여성의 일상생활을 의식주 생활과 소비 및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싱글여성의 의식주

20~30대 전문직 독신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 Hwang, 2003)에서는 자기개발에 적극적인 싱글여성들에게 의복은 대외적 자기이미지의 표현과 남과 다른 개성표현의 수단이었다. 또한 패션제품이나 브랜드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구매하는 등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며 패션전문잡지, 인터넷 패션정보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패션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였다(Lee & Hwang, 2003). 싱글족 사이에서는 패션 선도자 집단이 기존 자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비율을 보여 외모나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Park & Kim, 2006). 그리고 식생활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들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고급 레스토랑과 테이크아웃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생활패턴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건강과 미용에 상당히 민감한 식생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Lee & Hwang, 2003).

주생활에서는 집은 열심히 일하고 난 후 자기만의 독립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들은 자신의 생활을 가치 있게 만든데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부분은 배제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인테리어를 선호하였다(Lee & Hwang, 2003). Kim(2013)의 연구에서는 여성 1인 가구는 집을 범죄나 재해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주거 가치를 두고 있었다. 즉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렴한 주거비용과 편리한 교통,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이 주변에 확보된 입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30~40대 골드싱글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2014)의 연구에 의하면 골드싱글들은 주거공간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이용으로 변화하면서 획일화된 공간보다 개성을 중시하는 나만의 공간을 원하고 있으며, 여가를 중시하고 즐기려고 하나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여가활동을 집안에서 할 수 있도록 홈 짐(Home Gym), 홈바(Home bar), 홈 펍(Home Pub)과 같은 외부에서의 활동들이 주거공간으로 옮겨지는 현황이라고 하였다.

2. 싱글여성의 소비

소비계층으로서의 싱글은 결혼보다는 일 중심의 삶, 그리고 자신을 위한 소비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싱글들은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막강한 구매력을 가지고 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싱글은 비교적 여유로운 경제력과 함께 현재 지향적 소비자이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과감히 투자하는 적극적 소비자이다(Yang, 2007). 급변하는 21세기, 소비 트렌드의 근간을 이루는 ‘싱글족’은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젊음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특유의 문화 및 소비 코드를 형성하고 있다(Hong, 2007). 현재 1인 가구는 ‘삼포세대’라는 말로 대변되는데, 삼포세대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흔히 이들은 자기개발이나 취미, 문화생활 등에 집중해 소득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특징을 나타낸다(Sisaweek, 2015).

싱글 여성의 소비생활 양상은 마케팅 전략에서도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Yang과 Lee(2009)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싱글족 행동유형 및 의사결정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가치 추구형, 합리적 생활 추구형, 무관심형, 타인의식 생활형의 4가지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자아가치 추구형은 과시적 소비생활을 하며 자기개발과 여가를 중요시 여기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합리적 생활 추구형은 미래에 대비하는 합리적 생활을 지향하고 자기개발에 소극적인 집단이며, 무관심형의 경우 대인관계에 소극적이며 자기개발에 무관심한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타인의식 생활형은 대인관계에 있어 능동적이며 항상 타인을 의식하고 과시하는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설명하였다.

Choi(2007)는 여성소비자의 특징을 심리적 차별성, 신체적 차별성, 사회적 차별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심리적 차별성은 여성들은 감성 소비를 이끄는 주역이며, 21세기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감성’이 이들의 소비 트렌드에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체적 차별성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오감이 더 발달하여, 작은 물건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보고 듣고 만지는 등 오감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하려는 욕구가 강하여 컬러 마케팅이나 향기 마케팅 등은 여성 소비자들의 오감을 자극하여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라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차별성은 여성 소비자들이 남성보다 사회화 능력이 뛰어나며, 친근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여성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 좋아하는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형성된 입소문이 구매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Choi(2007)의 연구에서는 싱글 여성의 소비자 유형을 세 가지로 설명하였는데, 첫째, 사회적 성공과 돈을 중시하는 ‘콘트라섹슈얼’이다. 이 개념은 영국의 미래학연구소에서 출발한 것으로 어원은 ‘반대의, 대조적인’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 ‘콘트라(contra)’와 ‘성’이란 의미의 ‘섹슈얼(sexual)’이 합쳐진 조어로 원래의 의미는 ‘반대의 성’ 정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래학연구소는 이것은 ‘기존의 성 역할 및 관념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여성 또는 그 성향’으로 풀이했다. 이 유형의 여성들은 대개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경우가 많으며 따로 부양할 가족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의 상당 부분은 자신을 위해 지출한다. 둘째,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갱거루족’은 과거의 갱거루족

과 다리 스스로가 켜겨루족의 과도기성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당당해졌다는 점이 다르다. 평생도 아니고 젊을 때 잠시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이 큰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켜겨루족은 구매력이 다소 떨어지는 편에 속한다.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중시하는 ‘코쿰족’은 코쿠닝(cocooning)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골치 아픈 세상과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인 집에서 육체적 안락함과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한다. 이들의 소비 특징은 첨단 디지털 제품에 관심이 많고 활용도도 높은 편이다. 고성능 컴퓨터로 영화나 음악을 감상하며, DVD콤포, 미니 콤포넨트 오디오 등으로 영화관이나 공연장 못지않은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코쿠닝 싱글족이 출연한 배경은 대체로 바쁜 직장생활이나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친 나머지 집만큼 편안한 휴식 공간이 없다고 느끼게 된 사람들이 늘어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 밖에 싱글 여성의 소비생활에 대한 연구에서는 20, 30대 고학력 싱글 직장 여성의 소비영역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싱글여성들은 외모를 위한 소비, 음식점과 카페, 해외여행, 운동 및 자기 교육비, 문화생활 등의 5개 영역에서 주로 소비를 하였다(Mo, 2007). Kim과 Ahn(2009)의 연구에서는 싱글족이 하나의 소비세대가 될 때는 증후적이고 가격저항력보다는 편리성을 고려하며 소량 구매를 선호해 편의점을 이용하는 횟수가 높다고 하였고, Koh(2014)의 연구에서는 2인 가구보다 싱글족이 평균소비성향이 높고 외식비를 많이 지출하며 특히 즉석식품과 조리된 반찬 등의 가공식품 구입경향이 51% 높다고 나타났는데 이는 1인분의 식사를 조리하는 것이 조리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려는 싱글족의 증가는 편의점 점포의 수와 편의점 편의식품의 매출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Kim et al., 2014 cite).

3. 싱글여성의 여가

여가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진다. 우선 여가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일이 없어 남는 시간이란 뜻(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5)으로 직업상

의 일이나 필수적인 가사 활동 외에 소비하는 시간이다(Jeong, 2009). 싱글여성에 있어서 여가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여성 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혼여성이나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Kim, 2007). 싱글여성들은 여가를 ‘즐거움과 흥미’, ‘해방감’, ‘자유로움’을 표출시키기 위한 도구이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Kim, 2007), 싱글의 여가활동이 기혼집단과 다르지 않게 소극적 여가활동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oon, 2002). 또한 전문직 독신 여성들은 여학, 운동, 학업 등 시간을 중시하며 자기개발에 적극적이며, 취미생활을 싱글생활을 즐겁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여겼으며 다양한 취미생활과 자신의 몸 관리를 연계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 Hwang, 2003).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인 싱글여성은 연구자의 주변에서 본 연구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선정하는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심층면담의 특성상 자기 개방을 할 의사가 없거나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료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제공자 선정에서 정보제공자의 자발성을 우선적으로 중시했다. 정보제공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면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골고루 표집하였으며, 한 지역에 치우쳐서 정보제공자를 구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정보제공자들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즉 내용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가능성이 크기에 서울·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권역으로 나누어서 정보제공자들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명의 정보제공자를 선정하여 면접함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고

한 참여자의 말을 다른 참여자의 말과 비교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이는 타당도를 위한 초석이 된다(Lee, 2002). 정보제공자인 싱글 여성은 현재 30대와 40대이며, 결혼의 경험이 전혀 없으며,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면서 서울 경기 및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 거주하는 싱글여성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

심층면접은 미리 준비된 면접 가이드라인을 갖고 약 한 달간 실시되었다. 면접 가이드라인은 특정 주제의 개방형 질문을 던지고,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심화 질문을 던지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면접자의 면접 태도, 질문내용, 질문 방식 등을 일치시키기 위해 연구자 간에 사전에 논의를 하였고, 예비 모의 면접을 서로에게 해 본

다음에 서울·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3권역별로 본 심층면접에 들어갔다. 심층면접의 장소와 시간은 대부분 대상자가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곳과 시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다. 심층면접 시간은 한 사례 당 2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정보제공자의 사전 양해를 구해 녹음 하였으며, 면접 이후 녹취한 자료는 모두 필사본으로 전환되었다.

2. 자료분석 방법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분석 방법으로 주제별 분석법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Single Women

(N=18)

No.	Name	Age	Final Education	Occupation	Working Experience (year)	Monthly Income (One million WON)	Residence
1	An Hyeona	40	course completion for master program	Middle school teacher	18	350	Gyeongsang
2	Bae Hana	44	doctorate	Professor	9	350	Gyeongsang
3	Baek Seolhui	42	doctorate	Professor	12	350	Seoul, Gyeonggi
4	ChoiJieun	38	university graduate	Sales and service	17	180	Seoul, Gyeonggi
5	Choi Yunjeong	40	course completion for master program	Nurseries director, Institute director	20	500	Gyeongsang
6	Han Hyejin	41	doctorate	Psychological counseling	13	200~250	Seoul, Gyeonggi
7	Kang Miyeon	35	high graduation.	Esthetician	13	130	Jeonlla
8	Kim Minhyeon	32	university graduate	Home tutoring	7	120	Jeonlla
9	Kim Sangmi	38	master's degree	institute director	10	200	Seoul, Gyeonggi
10	Kim Seunghui	38	university graduate	Social worker	16	150	Gyeongsang
11	Ko Gyeonghui	38	doctorate	Professor	11	500	Jeonlla
12	Lee Huiyeon	37	course completion for doctoral program	Acupuncturist	10	450~500	Seoul, Gyeonggi
13	Lee Songi	36	doctorate	Lecturer(Uni.)	8	200	Jeonlla
14	Lee soojung	42	course completion for doctoral program	Lecturer (Uni.)	4	200	Seoul, Gyeonggi
15	Lee Yeonhui	41	course completion for master program	Counselors	7	100	Gyeongsang
16	Lee Yurim	36	university graduate	English Institute Director	3	600~700	Jeonlla
17	Nam Jinsuk	39	university graduate	Academy Instructors, Interior	16	180	Jeonlla
18	Park Jiyun	33	course completion for master program	Part-time work	5~6	90	Gyeongsang

* 위 이름은 모두 가명처리 하였음.

(thematic analysis), 내용 분석법(content analysis), 질문분석법(question analysis) 등이 있는데(Yang, 2000), 본 연구에서는 주제별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의 과정은 크게 3단계, 즉 면접 내용의 부호화 과정, 해체화 과정, 재구성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Chang, 2000). 이 과정을 따라 본 심층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접 내용의 부호화를 위해 정보제공자들의 면접 내용을 녹음한 것을 한글문서작업을 통하여 자료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면접 내용을 여러 차례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거쳐서 자료를 부호화하였다. 싱글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의미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핵심 언어로 부호화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하여 나타난 공통된 답변이나 유사한 내용이

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부호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류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이야기를 각 항목별로 정리하고, 같은 항목 내에서도 또 다시 세분화하였다. 면접 내용의 부호화 과정과 자료의 해체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주제에 대한 최종 목록을 정하게 되었고, 주제별로 내용들을 구성하게 되었다. 즉 자신, 관계, 생존, 미래준비, 자유와 그 어떤 이라는 5개의 대주제를 찾았다(<Table 2>). 이와 같이 주제를 찾는 과정을 통하여 싱글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의미를 알아 낼 수 있었다. 자료 분석의 전 과정에서 공동 연구자간의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Table 2. The Main Contents of Sub-themes

Themes(18)		Sub-themes	Main Contents
Self (3)		Only for me	Managing to improve my external appearance (keeping in shape and getting well dressed); Spending for myself (buying clothes and accessories, investing in purchase of study materials); My own space; Leisure life for myself alone.
		Perfection of self	Investment in self-development (participating in workshops, reading books, investing in continuous learning); Self-improvement through leisure activities.
		My own style	Clothes of my own style; Keeping and decorating the living environment in my own style; Quick and super-simple meal in my own style; My own style of leisure life (choosing the way I like in my convenience).
Relationship (5)	With her family (2)	For her family	Regularly giving money gift to her parents; Contributing more share of money on special family events than her brothers or sisters; Traveling abroad with parents.
		Still under the protection of her family	Just as getting side dish prepared from my mother, I get help from my parents in all areas of life; My elder sister is so worried about me that she wants me to stay with her family; Keeping good relationships with my nephews and nieces.
	With other people (3)	Pleasures with people	Enjoying interacting with others; Doing workout and exercise together with your family or friends; Having coffee or meals with close friends.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Meeting with single friends (which is more comfortable and familiar); I don't like joining internet clubs or meeting with new and unfamiliar people. Caution is needed against the idea that I am entirely cut off from the outside world; Being aware of the importance of human relations; Trying to understand how the world around her is working, through cultural life such as movie-going, etc.
Survival (3)		Health	Having nice meals for my health; Making sure to take three meals a day (without skipping a meal); Trying hard not to get overweight; An exercise program to improve your health; Seeing the doctor right away when she feels unwell; Getting a health massage.
		Safety	Prefer apartments for safety; Prefer her home with good security; I want to stay here in a safe apartment.
		Practice of living alone	Becoming independent and manage my life on my own; Learning to live alone and financially independent (paying for apartment maintenance fees, buying food ingredients, rational spending, managing taxes).

(N=18)

Themes(18)	Sub-themes		Main Contents
Preparation for the future (3)	Good spending		Reduce unnecessary spending; Spending mainly on daily necessities; Spending mostly around basic living expenses (i.e., basic cost of living, utilities costs, etc).
	Savings for later life		Living with financial stability in old age; Installment savings or savings for my later years; Saving plan for retirement; Saving money for uncertain future with the possibility of staying single in mind.
	Leisure in later life		Earning money for comfortable life after their retirement (hobbies, spare time activities such as drawing pictures, etc); Hoping for comfortable life after retirement with financial stability and more leisure time; Need to have some special hobbies for your golden years; It is important to have something to enjoy yourselves after retirement.
Freedom and hidden side of the freedom (4)	I'm free because I'm alone (2)	Freedom from bondage of my family	Pursuing a free life away from my parents; I live on my own escaping from family conflict; Living alone gives me a lot of free time; I enjoy my own life living alone and feel satisfied.
		Compensation for being alone	I can spend all my money at my will without caring what other people think; I can stay in bed all day without interference and restrictions; I make use of my time freely, doing the things I want to do; Leisure time and money-spending on clothes are compensation for me for living alone.
	Hidden side of the freedom (2)	Fear, dislike feeling and insecurities due to being alone	I feel awkward to go to the movies alone; I don't like going back to my place at dark, lighting up the room, watching TV and eating alone; Fear or anxiety of having no one to look after me in my old age; I am worried when I see my old parents; I am worried about what the future holds for me if I stay single longer.
		Overcome loneliness or solitude	Raising a pet helps to relieve the boredom of being alone; Choosing mountain hiking to fill loneliness; Reading books or learning something when feeling lonely; Looking for exciting hobbies to relieve the loneliness; I visit and see my mentor; Trying fortune-telling.

IV. 연구 결과

이 장에서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자신, 관계, 생존, 미래준비, 자유와 그 이면이라는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예증적 방식에 따라 서술하고자 한다.

1. 자신

1) 오직 '나'를 위해

30-40대 싱글 여성들에게는 오직 '나'를 위해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다. 예쁜 옷을 입더라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옷을 선호하고, 오직 '나'만을 위한 옷이나 악세사리, 가방, 교재비 등을 구

매하는 데 소비하고 있었다.

..저의 욕망일 수도 있는 데요. 예전에 의류 디자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몸을 날씬하게 해서 이쁜 옷을 입고, 남자 옷도 상관없이 내 만족으로 내가 이쁜 몸을 갖고 이쁜 옷을 입는 걸 원해요.(이희연)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제 개인적인 소비인 것 같아요. 옷을 산다던지 뭐 악세사리나, 가방 이런 거. 그 다음에 최근 많이 들어가는 게 교재비라든지,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책이라 던지...(박지윤)

주생활에서도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사는 싱글 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관여 없이 혼자 사는 생활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편안하고 만족스럽다고 한다. 주거공간을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거공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꾸며볼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갖기를 희

망하고 있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주거공간과 자신의 욕구를 충실하게 반영해 볼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강한 바람이 깃들어 있었다.

혼자 살면서 주말 같은 경우에 혼자서 잘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만의 생활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일단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정말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요. (김승희)

진짜 돈이 생기면 나만의 공간부터.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라도. 나만의 공간부터 갖고 싶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나만의 공간을 좀 꾸미고 싶고 집을 편안한 휴식처, 나만의 휴식처로 만들고 싶어요.(최윤정)

특히 싱글여성들의 여가에 있어서는 오직 '나'만을 위한 여가를 보내고 싶어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40대이면서 교수, 어린이집 원장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배하나, 최윤정, 백설희는 여가 시간 만큼은 자신만의 시간이기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혼자서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였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닌 홀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들 싱글여성들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질수록 다른 사람들과 얽매어서 여가를 보내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는 삶의 경험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자신만이 할 수 있고, 자신만이 좋아할 수 있는 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고, 혼자만의 시간에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 싱글 여성들에게는 더 익숙하고 편안한 경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저는 일단 술도 안 먹고 노래방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춤추러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림공부가 끝나면 모여서 술을 마시러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데 잘 어울리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참.. 너무 그렇게 살 필요 있느냐 세상에 더 즐겁고 재밌는 게 더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재밌지가 않거든요. 이제 직장을 다니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혼자만의 생활이 굉장히 익숙해 진거죠. 어떤 때는 쓴다는 게 혼자서 지나간 영화를 몇 편 가지고 와서 계속 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거나...(배하나)

혼자가 편한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막 전화 오거나 막 누구 연락하고 만나자 하잖아요. 난 일절 안 받고 그냥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윤정)

다른 사람이랑 어떤 시간을 제가 얽매어서 산다는 것은 제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등산은 가끔씩 친구랑 가기도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맞아 되니까.... (백설희)

또한 이유림, 이희연, 김상미 같은 전문직의 바쁜 싱글 여성들은 바쁜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의도적으로라도 할애하고 싶은 열망이 보였다. 여가시간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기 원하면서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주로 하며, 바쁜 일상생활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어 있는 그 시간을 전부 집에서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깐 오히려 산책하는 시간이 생겼어요. 일정 시간을 잡아서 혼자 나가서 사람 구경하고 막 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저는 산책을 되게 좋아해요. 정말 빈 시간이 생기면, 그냥 편한 신발 신고, 무작정 막 걸어 다녀요. (이유림)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라 해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닌데, 시간을 빼서라도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제가 직장을 위해 살순 없으니까요. 저 자신한테 이제 네 시간도 있어야지 이런 의미죠.(이희연)

제가 지영업(학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일을 해야 되고, 주중에는 애들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관리나 이런 일들을 해줘야지 그래야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는 학원 일을 하고 뭐 집안에서 필요한 거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일요일은 집 청소를 해요. 집 청소를 하고 힘드니까 목욕, 사우나 좀 하고, 책 조금 보고 텔

레비전 조금 보고 이정도. 그런 시간이 없으면 또 일주일
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김상미)

학원강사를 하면서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남진숙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즐거움과 재미를
만들어 내고 있었으며, 김승희와 강미연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
람의 편여 없이 여가 시간을 혼자서 즐기는 편안함을 한껏 맛보
고 있었다.

월요일은 피아노 선생님 오셔서 하루가 가고, 화요일은
요가를 가고, 수요일은 평생교육원에 가고, 목요일도 요
가를 가고 금요일은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일본어 선생
님이 오신다 하니깐 후배가 “언니 그건 노는 게 아니라
숨막히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놀이라고 생각해
요. (남진숙)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나 이런 때 밖에 나가거나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뭐 잘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만의 생활을 많이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일단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뭐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정말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승희)

여가 그 시간만큼은 제 시간인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했
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트레스 받기 싫거든요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앉아서 (좋아하는) 게임하고.... 그러는 게 좋으
니까요. (강미연)

2) ‘나’를 완성시키고 싶은

박지윤은 결혼하지 않아 남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초라해 보
일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옷차림을 통해서 자신감
있고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만들고 싶어하였다. 특히 한혜진과
이송이는 같은 전문직 싱글 여성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 뭔가 배
울 수 있는 학습 등에 많은 여가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이
처럼 자신의 생활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곳에는 투자를 아
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생활에서도 자신의 지적,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활동에 투자하면서 자신을
만족스럽게 완성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직 싱글 여성들의 경우 인생에 있어

서 자아실현과 확고한 정체성 확립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
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자칫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초라
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외
모적으로도 좋은 인상을 주고 조금 당당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옷차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도 좀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거 같구요...(박지윤)

제가 공부하는데 많이 써요. 뭐 워크샵을 듣는다든지 이
렇게 뭘 배우러 다닌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저희 집은 공
부하는데 돈을 쓰는 건 한 번도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없
거든요. 늘 거기엔 돈을 써야 된다고 하셔서...
뭔가 배우러 다니는데 돈을 많이 써요. (한혜진)

저의 감성적인 부분이나 지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더
쌓아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가활동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요 (여가활동은)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저를 더
완성 되게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수단이라
고 볼 수 있어요. (이송이)

3) ‘나’만의 스타일

의생활에 있어서 싱글 여성들의 ‘나’만의 스타일을 지향하는
면이 두드러졌다. ‘평상시에 청바지를 입고’, ‘명품보다 시장에서
서 자신에게 적합한 옷을 구매’ 하는 등 자신이 추구하는 이미
지가 뚜렷하였고, 그에 맞게 의복 스타일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기만의 의생활 스타일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분명함을
보여주며, 특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욕구에 부합하
는 행위를 능동적으로 결정해나가는 모습을 만들어 내었다. 또
한 주생활에 있어서도 별로 꾸미지 않고 그냥 자신에게 편한 대
로 늘어놓고 사는 식의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만원. 아까 내 신발 저것도 국제시장가서 만
원주고 샀는데 이쁘게 자랑하고, 만원주고 샀다하고,
가방도 이거 공짜로 얻은 거거든요. 이런 거 막 들고 다
니고 그래요.
나는 그다지 좋은 거 입어야 된다 그 개념은 없어요. (최
윤정)

굳이 명품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품질이 좋은 옷을 입고 옷을 깔끔하고 입는 건 좋은데 자기한테 잘 맞게 예쁘게 입는 게 중요하지 명품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고경희)

저는 평상시에는 청바지를 되게 즐겨 입고, 사실 정장을 많이 입는 편은 아니에요. 슈트는 조금 브랜드 있는 거를 입고, 안에 입는 거는 동대문이나 심한 경우는 쇼펍센터 같은 데 가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림)

저는 마음이 20대니깐요. 하하... 아무래도 좀 더 젊은 스타일을 더 입는 것 같아요...
싱글이어서 젊고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진숙)

작은 평수 아파트기 때문에 혼자 살기에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음.. 인테리어는 그렇게 많이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소품들만 좀 취향대로 그냥 꾸며놨고 오히려 더 손을 안대는 것 같아요(웃음) 그냥 집에 들어오면 널브러져있기 때문에(웃음) 꾸미지 않아요. (박지윤)

싱글여성들은 식생활에 있어서도 식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아침엔 콘후레이크나 생식, 두유, 빵 등, 점심은 직장에서, 저녁은 동생 집이나 외식으로 해결하거나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식사를 위해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초간단식, 다이어트식, 외식, 다른 집에 가서 먹기, 간단하게 만들어 먹기 등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식사는 동생 집에 가서 먹거나 제가 해 놓은 거 일주일에 2~3끼 먹는 게 고작이고 회식 있으면 회식하고 아침은 간단하게 뭐 콘후레이크나 생식 이런 거 먹고 점심은 여기서 나오니깐 저녁은 제가 해서 대충 간단하게.... 먹고 싶으면 주로 사먹고 해 먹지는 않아요. 재료 사서 해먹고 버리는 게 더 많기 때문에(안현아)

아침은 시간이 없어서, 거의 두유하나 먹거나 빵 하나 먹거나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저녁은 이제 사람들 만나면 외식... 그 전에는 한 끼 정도는 집에서 해먹으려고 했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살 좀 뺄 겸 간단하게 다이어트식으로 좀 구성을 해볼까 생각...

(이희연)

식사는 주로 집에서 해서 먹어요. 저는 초간단식으로 먹으니깐... 그리고 밥은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나머지는 뭐.. 과일, 계란 이런 걸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반찬하고 이런 데 시간 쏟고 이러는 건 별로 안 좋아 해요. (고경희)

여가에 있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않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영위하고 있었다.

월요일은 피아노 선생님 오셔서 그럼 하루가 가고, 화요일은 요가를 가고 수요일은 평생교육원에 가고 목요일도 요가를 가고 금요일은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일본어 선생님이 오신다 하니까 개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그건 노는 게 아니라 숨막히겠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재 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남진숙)

뒹굴뒹굴하면서(웃음) 저는 집에서 일단 나가는 거 자체를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은 성격이기 때문에 여가 활동.. 특별하게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는 거 그런 게 너무 좋고(김승희)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가치와 취향, 경험을 더욱 중시하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다 보니 자신만의 독특함이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표출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싱글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취향, 경험이 가미된 나만의 스타일을 지향하는 의식주생활, 소비 및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진다.

2. 관계

1) 가족과 더불어서

30-40대 싱글 여성들에게는 가족 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

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행사 때 결혼 형제들에 비해 넉넉히 경제적 기여를 하는 모습이 있는 반면 부모님께 의식주 도움을 받는 관계 형태로 미독립된 상태를 유지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는 가족 및 친한 사람들과의 식사, 술자리 등 만남을 유지하고, 처지가 비슷한 싱글끼리의 만남, 새로운 사람들보다는 익숙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나가고 있었다.

(1) '가족'을 위해

강미연, 배하나, 이희연, 최윤정은 싱글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용돈을 드리거나, 행사 때 결혼한 형제자매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챙기게 되고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 자신의 소비의 많은 부분을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대부분 지출은 이제 엄마한테 일단 갖다 주고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 돈을 쓰든지, 아니면 엄마가 어떻게 하든지... 왜냐면 집에 소득이 많지 않다보니깐 엄마한테 갖다드리고.(강미연)

아무래도 저는 그 다른 형제들은 자기가족이 있으니까, 자기가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감, 그리고 자기 가족이 더 우선인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거나, 부모님에게 뭘 해드리거나... 제가 늘 수입은 고정되어있어 많은 걸 해드리진 못해도 그래도 많이 해드리려고 애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동생들은 자기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가족, 집도 사야 되고, 애도 교육 시켜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부모님한테 쓸 만한 것이 항상 풍족하지 못 한거죠. 제 댄에는 부모님한테는 나름대로 잘해드리려고 애쓰거든요. (배하나)

저희 언니 오빠들을 보면 집안에 내 놓아야 할 돈 있잖아요, 한 번씩이요. 그러면 아무래도 큰 거를 솔로인 저랑 큰 오빠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터치하는 사람 없고, 혼자 벌어서 혼자 쓰니까 큰돈을 많이 내놓는 편이죠. 굳이 비교하자면, 근데 오빠도 부인이 있으면 그렇게 못 할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죠.(중략) 부모님 모시고 거의 해마다 한 번씩 해외여행 갔었는데요, 최근에

한 1,2년 빼고는 해마다. 부모님을 주로 제가 모시고 다니죠. (이희연)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따로 살았을 것 같아요. 결국은 엄마도 내가 모시고 있는 건데..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100% 따로 살았을 것 같아요. 편찮으시기 때문에.. (최윤정)

(2) 아직은 '가족'의 그늘에서

30-40대 싱글 여성들에게 가족을 위해 소비하고 여가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과는 다르게, 아직 가족의 그늘에서 미독립된 상태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형제자매와 조카들과 관계를 맺으면 사는 모습도 나타났다. 한혜진은 식생활에서 부모님이 반찬을 챙겨주셨고, 김상미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의식주 모든 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희연은 언니와 조카들과의 관계를 가깝게 맺어가며 정서적으로 지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너 혼자 있으면 이렇게 반찬 한 가지를 놓고 먹는다. 그게 문제다 하세요. 정말 그렇게 먹어요. 단순하게 해먹고 나가서 사먹는 것 외에는... 어머니가 반찬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요. 엄마한테 농담으로 그래요. 집에 우렁각지가 있으면 시집 못 간다고, 이렇게 집에 와보면 냉장고에 뭐가 막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리저 마시라고 말씀드려도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한혜진)

근데 한국사회에서는 이제 집이 서로 가까운데 여자애가 나가살면 편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가라는 말한 적도 없으셨고,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처럼 살면서 의식주 모든 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니까..... (김상미)

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걱정이 돼서 자기랑 근처에 살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가 제가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자기 집 옆에서 살면서 같이 노후를 즐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제 친구들은 또 지네집 근처에서... 솔로 몇 명 있거든요. 개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자. 이런 제의를 한 적은 있었어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어요. 노후의 모습을 걱정만 하죠. 그래서 이제 조카들한테도 자꾸 그렇게 하죠. 제가 병원생활하면서 이제 독립한지가 한 4-5년 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 계속

언니네 집에 있었어요. 그니까 애들을 거의 기르다시피 했는데, 조카들에게 한 번씩 확인을 하죠. 이모 늙으면 잘 해줘. 거의 자식 같은 애들이라 지내엄마한테 10번 찾아가면 나한테 한 번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희연)

2)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30-40대 싱글 여성들에게는 가족 외에 선후배, 친구, 종교 생활에서 만난 사람들,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싱글 등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다. 이러한 만남은 싱글 여성들이 완전히 홀로임에서 벗어나 세상과 소통해나가는 하나의 방식일 것이다.

(1) 함께 하는 즐거움

싱글 여성들은 지인들을 만나 식사나 운동, 종교 생활, 여가 활동을 함께 해나가며 누군가와 소통하고자 하는 관계에 대한 욕구를 보여주고 있었다. 즉 음식, 운동, 종교활동, 여가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과 편안함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로 드러났다.

종교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집에 있거나 약속이 있으면 거의 그 약속들이 선후배 간의 약속들이어서 만나서 저녁 먹고, 술 마시고, 그러고 놀았죠.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해서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김민현)

주로 지인들을 만나요. 운동 나갈 때 같이 만나고 저녁 약속을 해서 같이 먹어요. 저는 오래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연령상으로 거의 위애가 많아요. 나이가 어린 사람은 글썽요. 제가 이제 막내고 언니들이 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더 사이좋게 지내는 타입이지 나이 어린 친구들을 잘 챙겨주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이송이)

여가활동에 드는 돈에 핵심적으로 제일 많이 드는 거는 식구들하고 친구들 하고 뭐 먹는거... 제 친구들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하고 밥 먹고 커피마시는 것 밖에 안해요. 그리고 물론 그 친구들이 원해서 미술관에 가거나 음악회 가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

든요. 그 친구들이 또 저한테 맞추니까 주로 먹는데 많이 써요. (한혜진)

새로운 다른 사람들, 전에 이제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도 정말 그냥 일로서가 아니면 직장 동료도 잘 어울리지 않고 싱글 친구 몇 명 있고, 그 말고는 다른 사람 만날 기회가 없는데, 그럼 그러러 가면 여러 다른 사람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듣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냥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 같은 게 들어요. (배하나)

(2) 싱글들끼리의 편안함

또한 배하나와 이유림과 같은 전문직의 싱글 여성들은 바쁜 생활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잘 알고 지내던 싱글들끼리의 만남을 더 편안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싱글인 사람들하고 모여서 여가를 보내요. 제가 싱글 친구라고 하면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을 만나면 각자 다 다르지만, 그 나름대로 이렇게 편안하고 그래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처지가 비슷하다는 걸 아니까, 생각도 비슷하다는 걸 아니까... 다른 활동이 있거나, 다른 뭐 이런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진화하면 뭐 얘기가 맞으면 만나지고, 지꾸만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저는 일단 낯선 사람 만나는 게 즐겁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관계를 만들어나가기보다는 있는 관계를 잘 정리하고 그렇게만 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배하나)

그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게, 보통 퇴근 뒤나 주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면 다들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저 같은 싱글 같은 경우에는 저장 같은 상황에서 있는 사람이라야 그냥 편하게 만날 텐데... (이유림)

(3) 세상과의 소통

그리고 싱글 여성들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며 영화 등 문화 생활을 통해 세상과의 소통하기를 원하였다. 여기에는 싱글 여

성으로서의 가치 있고 멋있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에 완전히 홀로되지 않도록 주의해 나가며 인간관계와 문화생활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멋있어지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뭐 걸으러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좀 일종의, 그러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있다 보면 별로 자극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하고, 하다보면 어느 정도 저한테 자극이 되고 또 생활 패턴에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혼자 있지만 너무 또 혼자 그 생활에 빠질까봐 그것도 좀 조심을 하려고하고 다른 사람들 하고의 모임을 통한 인간관계 교류 또한 여가 활동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박지윤)

(내 삶에 있어 여가는) 세상과의 소통인 것 같아요. 영화를 보던지 문화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배우는 거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문화가 어떻게 되어가고, 그런 거는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최지은)

2. 생존

30-40대 싱글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건강을 챙기며, 안전한 주거 형태를 선호하며, 필수적인 것에 소비하려는 습관,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소한 일처리들을 혼자 해나가며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는 등 자신의 안녕을 위해 생존해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1) 건강

싱글 여성들은 건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뚱뚱하면 좋지 않게 보는 타인의 시선을 염두해 두기도 했고(최지은), 등산을 통해 건강을 챙겨나가기도 했다(백설희). 그리고 이송이는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바로 병원을 찾아가거나 마사지를 받아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민감함을 보이기도 했다.

식사는 주로 부모님하고 있으니깐 꼬박꼬박 먹고 있고 나

이가 들고 하나만 챙겨먹으려 하는 편이죠. 그렇지만 챙겨먹으면서도 요즘은 너무 또 뚱뚱하거나 그래도 보기, 그런 것도 안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시선을,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죠. (최지은)

또 등산 가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건강함을 획득할 수 있지 않나.. 혼자 살 때 어.. 건강하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몸이 아프면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건강치 않게 될 수 있으니까. (백설희)

진짜 혼자 사니까 더 늙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 관리를 많이 받죠. 그리고 운동도 하면서 관리하고 있어요. 경력 같은거... 제가 몸이 안 좋거나 어깨가 안 좋거나 이러면 예전 같았으면 아유~어깨 아픈 거 뭐 시간 지나면 낫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바로 병원을 찾아간다던지 경락을 받는단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죠. 지금은 그런 쪽에 많이 예민해 있는 편이에요.(이송이)

또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식생활에서 아침을 신경 써서 챙겨먹고, 삼시세끼는 꼭 먹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싱글 여성도 찾아볼 수 있었다.

혼자 있으니깐 식사에 많이 신경 쓰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제 판에는 신경 쓴다고 일주일치 정도 음식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아침은 이렇게 챙겨서 그것을 먹고 나오거든요. 최근에는 그것도 그랬어요. 그전에는 거의 아침 잘 안 먹고 점심, 저녁 사먹고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배하나)

아침에 밥이 먹기 싫으면 빵이나 떡이라도 먹고 출근하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으니깐 상관없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끔씩 정말 밥이 하기 싫고 다른 게 생각 날 때는 외식하고.... 저는 사실 제가 밥을 꼭꼭 챙겨 먹어야 하기 때문에 삼시세끼 뭐라도 때때마다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김승희)

2) 안전

30-40대 싱글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이 안전한 장소

로 아파트를 선호하며 철저한 보안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것은 자신이 홀로 지내며 기본적으로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의 반영일 것이다.

저는 25평의 조그마한 아파트데, 혼자 살기에는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이제, 부모님이 오신다거나 뭐 가족들이 잠깐 온다거나, 이럴 때도 있으니까. 어.. 서른 세평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가족이 있다면 저는 주택에서 살면 좋겠어요. 정원도 있고. 그러면 좋겠는데, 혼자니까 그러지는 못 할 것 같고.. 주택은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고 안전상의 문제도 많으니까, 그래서 혼자 지내게 된다면 25평에서 33평 이내의 아파트가 안전하고 적절한 것 같아요.(배하나)

살고 싶은 거주 유형은 아무래도 아파트가 안전 할 것 같아요. (최지은)

혼자 독립해서 주거생활을 한다면 보안이 잘된 아파트에서, 적당한 평수에서 잘 꾸며놓고 살고 싶어요. 제가 좋아 하는 풍, 엔틱하게. 혼자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면서 준비하죠. (김상미)

3) 혼자 살아내는 연습

이유림은 독립한 지 4개월쯤 되어 관리비, 세금 처리 등 생활 관리 능력과 소비 개념을 배워나가고 있었으며, 혼자 살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또한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혼자 생활력 있게 살아나가는 김상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에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살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혼자 살아내어야 하기에 여행 등의 여가는 그녀에게 사치이고 남의 이야기인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책 읽기, 운동, 여행 등을 통한 심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혼자 살아요. 독립한 지 4개월쯤 되었어요. 독립한 이유는 가족들의 결정이었는데요(웃음) 어..결혼을 안 해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 생활이 정신이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구요. 남동생은 결혼을 안 해서 어른이 안 되서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생활에 대한 계획성이 적다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비도 좀 내보고, 세금 처리를 본인이 하고,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런 거를 좀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 거를 안 해서 걱정이라고 그러더니 나가 살아봐 하셔서 이렇게 독립해서 지내요... 독립을 하고 나니깐, 관리비도 내야 되고, 뭇도 내야 되고, 이게 처음으로 생활이라는 개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음식도 제가 해 먹어야 되니깐, 월요일 수업이 끝나면 가서 장을 봐요. 그러면서 식재료를 사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내가 뭘 해 먹어야 되겠다는 계획이 생기면서, 아.. 주부들이면 이래서 옷을 못 사 입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독립하면서 소비지출에 대해서는 계획성이 더 생겼어요. (이유림)

저의 꿈은 취미생활을 갖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책도 보고 운동도 좀 하고, 경치 좋은 데 가서 좀 보고, 그리고 싶어요. 요리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지금은 바쁘니까 밥도 빨리 아무데나 가서 먹고, 요리는 무슨 요리야, 바빠 죽겠는데, 힘들고, 아무거나 사먹고.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가요.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거든요. 전에는 외국여행도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돈도 없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가고 싶지도 않고. 마음이 지금 불안한데 외국 가서 좋은 걸 보면 지금 마음에 들어오냐고요.

지금 1순위가 영어, 2순위가 남자, 3순위가 취미.... (김상미)

4. 미래 준비

30-40대 싱글 여성들에게는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로 크게 착한 소비, 노후대비 저축과 여가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찾아볼 수 있었다.

1) 착한 소비

30-40대 싱글 여성들은 화려한 소비와는 거리가 멀다. 생활비, 주거 관리비, 식생활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생활비, 최소한의 영업을 위한 의복 생활 등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부분에만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소비는 앞으로 계속 싱글로 지낼 경우 미래를 대비하여 돈을 아껴야 한다는 인식에서 착한 소비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냥 기본적인 데만 소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마사지를 받으러 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뭐 화장품은 좋은 것 써야 된다니까 쓰고 이제 옷은 좀.. 예전에는 돈을 좀 들여서 많이 사 입고 그런 걸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었죠. (배하나)

지금은 기본적인 것. 최소한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옷을 사고 외식하는 것. 그것도 비싼 거 먹는 거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 먹고, 기본 생활을 위한 생활필수품 그 정도 소비밖에 안 해요. (김상미)

소비생활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생활비. 그러니까 관리비부터 해서 식생활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생활비지요. (박지윤)

2) 노후 대비 저축

앞으로 혼자 살 경우를 대비하여 싱글 여성들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저축은 필수적이며, 노년기에 건강이 쇠약해질 것을 대비해 실버타운을 염두에 두며 저축을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원을 아껴 노후를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부관리사,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강미연, 남진숙과 같은 비전문직 싱글 여성들은 자신이 홀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버거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직에 종사하는 싱글 여성들은(한혜진, 이송이, 고경희) 노후 준비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전문직에 종사하든 아니든 어쨌든 싱글 여성들에게 앞으로 혼자 보내게 될 가능성이 많은 노후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임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후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지금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일을 계속 한다면 실버타운이나, 제가 만약에 노인이 돼서까지 싱글이면 실버타운 들어갈려구요. (강미연)

제일 큰 문제가 노후대책이죠. 예를 들어서 저금을 들어 놓는다는지... 제일 큰 문제가 그건데 나 재밌게 살고 있어 하다가도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손 벌릴

사람이 없으니깐 제가 그걸 다 해야 하니깐 마련은 해와야죠 어떻게 해서든지...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여자 혼자 마련한다는 게 혼자 있다 보면 못 모아요 돈을. (남진숙)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60대 중반정도 까지 일을 할 수 있고 그때까지 계속 일을 하고 꼬끔씩이라도 저금을 하면은 저는 이렇게 그런 걸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또 배운 게 있으니까 설마 그 나이, 만약에 정년퇴직 이후에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구 하더라도 저 하나는 먹고 살 자신 있을 것 같아요. 병에 걸리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선 그래요. 왜냐면 집이 있고, 소득이 있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금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만 제가 한 60대 중반까지 살면 그 저금한 것으로 살 수 있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혜진)

저는 저축을 좀 많이 해요. 허허... 나중에 결혼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비를 하는거죠. 혼자 살 경우에 대비를요. 미래에는 일을 안 하게 되도 돈을 벌어주는 신랑이 없어도 제가 혼자 그냥 다른 가족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 정도는 되야 하니깐 노후를 위한 대비로 지금 저축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송이)

옛날부터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노후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축을 그만큼 하는 것은 이제 처음 직장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다가보니까 어느 만큼 저축으로 들어갔고 돈이 남으니까 또 그것도 이제 해야 되는 것 같고, 집도 한 채.. 연금이 물론 저축이 사학연금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왜냐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생활이 길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중간에 제가 어떤 새로운 걸 찾았을 때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는 것 같구요. (고경희)

3) 노후 대비 여가

또한 싱글 여성들은 노후에 자신의 여가 생활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또한 노후의 여가 및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잘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고 나서야 외로움을 극복하고, 편안함과 행복함을 느끼기 위

한 노후의 여가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 특히 노후의 여가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싱글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났는데, 안현아에게는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이 선호하는 활동을 하며 외로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대비책이 있었으며, 김상미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젊은 시기에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 자립을 잘 해 놓고 노후의 여가를 즐기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겠지만 노후에도 역시 외로움이란 거는 느껴질 것 같고, 심적인 그런 외로움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도리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취미생활,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림그리기 라던가 이런 것에 관심이 가고 있어요. 여행을 가더라도 스케치파일을 해가지고 사진보다는 손으로 그린 스케치가 저는 좋거든요. 그런 쪽으로 (여가)개발을 해 나가고 하는 수밖에 없지않아... (안현아)

지금 돈을 벌고 일을 하는 목표가 그거예요. 취미를 하기 위해서. 생활이 안 되는데 취미를 가질 순 없잖아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노후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비해야죠...

저는 요즘 일부터 그런 노후에도 싱글로 계속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영업을 잘 되가지고 조직을 잘 키워가지고 보스가 되어있는 상상을 일부터 해요. 그렇게 되려고 보스가 돼서 일하고, 그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 더 있었음 좋겠어요. 취미생활하고, 자립 스스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거, 그게 목표예요. (김상미)

5. 자유와 그 이면

30-40대 싱글 여성들에게는 자유를 향한 욕구를 자신의 일상생활의 의식주에서 부모와 독립, 혼자만의 생활을 만끽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에는 싱글 여성들의 불안, 두려움, 외로움, 쓸쓸함,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마음 등 이면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1) 홀로라서 자유

(1) 가족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은 일상생활의 자유로움으로 이어졌고, 싱글 여성들에게는 가족과 부대끼며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 홀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일상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약에 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했다면 매일 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한 마디라도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떨어져 사는 것과 집안에 형제가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착하지 않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조금 자유롭지 않았나 싶고. (이수정)

졸업하고 직장 때문에 독립했다가 다시 집으로 왔는데 한 몇 개월은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하고 근데 저희 아빠가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어린 나이니깐 빨리 가라 사람을 만나서... 그게 너무 듣기가 싫어서 트러블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같이 있는 동안에 너무 스트레스를 제가 받은 거예요. 이렇게는 부모님하고 같이 못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립한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일을 저질렀죠. 하하... 그리고 나서 저 이사 가요. 그러니깐 저희 아빠가 몇 년 동안 정말 안 풀어져가지고 그럴거면 호적을 따라 이럴 정도로... 시집가야만 옮긴다... 좀 고지식해서 한 몇 달을 안 보시더라고요. 이사 온 집도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지내다가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 오빠가 화해모드 해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하세요. (남진숙)

지금 부모님하고도 독립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도 많고 해서, 근데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외롭거나 막 이렇게 힘들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즐기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박지윤)

(2) 홀로이기에 나에 대한 보상

싱글 여성들은 홀로 지내는 자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며, 싱글로 살아가는 자신에게 휴식, 자유 등 심 등으로 보상해주기

도 하고, 음식, 옷 구매 등 자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정서적, 물질적인 충족을 시켜주고 있었다.

그 돈을 나에게만 쓸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에게 해주고 싶으면 우리 엄마에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나한테만 쓰고 싶으면, 눈치 안 보고 내가 내 돈을 맘껏 쓸 수 있는 거. (김민현)

하루 종일 그냥 혼자 집에 누워있어요. 누구 간섭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을 마셨다면 거기다 놓아도 누가 치우라는 사람도 없잖아요. 걸리는 사람도 없고 그 하루가 행복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사우나를 갔다가 딱 나왔는데 막 뿌듯해요. 저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깐 딱 뿌듯한 마음에, 예를 들어서 오뎅 국물 하나 마셨어요. 거기에 대한 행복감이 피어오른다고 해야 할까, 그 자그마한 것에서도 이래서 좋구나. 혼자 있는 게. 그럴 때 느껴요. (남진숙)

집에 이렇게 혼자 있고 이럴 때. 그녀가 하고 싶은 제 마음대로 제가 시간을 쓰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고경희)

제가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살 수 있다는 거. 집도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이렇게 직장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잡자는 거, 먹는 거, TV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책사는 거, 이렇게 뭐든지 제가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고, 어떨 때 집에 이렇게 저녁쯤에 들어가서 불 켜놓고 촛불이라도 켜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원하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이렇게 두, 세 시간씩 흘러가면서 아, 이렇게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 (한혜진)

여가생활이나 옷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건 싱글로 사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한 여성이 못하는 걸 내 친구들이 못하는 부분에 제가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상구입비에 그렇게 과소비를 하는 건 제 성격 상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개네들이 이거 살까 저걸 살까 두 개 놓고 고민 할 때 저는 그냥 두 개를 다 산다던지... 결혼 한 개네들은 그 대신 신랑 있고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없잖아요.

그니깐 다른 길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송이)

2) 자유의 그 이면들

(1) 혼자라서 ‘불안’, ‘싫음’, ‘두려움’

싱글 여성들의 자유 그 이면에는 불안, 싫음, 두려움 등 홀로 있음에 대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혼자 감감한 집에 들어가거나 영화를 보러갈 때 쑥스러움, 노후에 대한 불안 등 불안한 마음은 싱글 여성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싱글들의 고독의 경감을 위한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는 좀 쑥스럽고 좀 이럴 때..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 싫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고경희)

이제 불 켜고 들어가서 혼자 TV보고 혼자 밥 먹고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역시나 많이 심심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연희)

시간이 될 때는 남자친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그 TV를 본다던지 아니면 이제 요즘은 공부를 하려고 해서 책을 보는 편이에요. 성격상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는 거는 편하지가 않아서 좀 낯도 가리고 대인관계가 이렇게 활동적이고 원만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항상 거기에 대한 불만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기 때문에 너무 제 그 생활이라던지 제 생각 속에서만 이렇게 계속 들어가서 좀 어떨 때는 너무 내가 자기 생각만 가득 찬 게 아닌가. 남의 말은 좀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내 생각이 더 좁아진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에서 조금 두려움이 또 있고요. (박지윤)

만약 이대로 간다면 노후가 불안 할 때가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은 자식도 없고, 가족도 아무도 없는데 나중에 노후가 되면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그러면 돌봐주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가기 전 까지 그 때를 미리 알아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런 상황이 오는 게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요. 아무도 나의 그런 노후, 말년의 그 생활에 대해서 누구도 나에게 그만큼 신경써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즘 그게 특히 부모님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이 점점 늙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너무 불안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배하나)

집에 가면 불을 못 꺼요 2~3년 전부터 집에 가면 불을 켜놔야요 한 번 딱 켜면 못 꺼요 두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두려움이 엄습해요 뭐지 모르겠고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불을 딱 껐는데 잠은 안 오는데.. 대부분 혼자 사는 그 싱글 여자들이 불면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불 끄고 어느 순간 누웠는데 이대로 계속 혼자면 앞으로의 내 미래에는 어떻게 막 이런 생각에 두려운 거예요. (남진숙)

(2) 외로움, 쓸쓸함 극복하기

외로움과 쓸쓸함에 맞서기 위해 싱글 여성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자원들을 끌어 모아 극복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 애완동물 키우기, 등산하기, 책 보기, 멘토 찾기, 점 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애완동물을 키우니까요 성격이 이렇게 온화해진다고 해야 되나... 보면 좋아요 이제 잘 해주려고 하고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예쁘고 귀여운 것을 많이 하니까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저절로 나고 어, 산책 같은 걸 할 때도 같이 가면 든든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보게 됐어요. 막 화를 내는 감정이 어떻게 억지로 더 막 부추겨서 더 만들어내는구나. 화가 그냥 저절로 확 나는 게 아니고, 그런 화를 내려고 막 의지적으로 하는구나. 그런 것도 좀 알게 되고 저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굉장히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할 때 애완동물이 이것을 든든하게 채워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연희)

외로움이나 쓸쓸함을 채워 줄 그런 방법으로 제가 등산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라도 1주일에 한번 씩은 등산을 간다거나, 그리고 주변에 싱글친구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회를 간다거나, 그런거 하고, 그답에 또 가족에게 가거나, 동생가족에게 가거나 그래서 조카들과 같이 좀 논다거나.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조카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내려올 때면, 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아무리 내가 조카에게 애정을 쏟고 뭐 해준다하더라도 결국은 그 아이들은 내 가족(피

붙이)은 아니잖아요. (배하나)

외롭거나 쓸쓸할 때는 있지요. 이를 내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걸 좋아해도.. 또 잠깐이라도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면 좋은데, 오래는 아니더라도 두, 세 시간만 나가서 만나도 좋은데 이를 내내 혼자 있는 거는 좀.. (고경희)

외롭고 쓸쓸할 때 있죠, 그거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싫어서 뭐 책을 읽는다가거나 뭐 다른 일로 대처했다거나 교육을 다닌다가나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멘토를 찾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하죠. 특별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길에 다녀보면 타로점 봐 주는거 있잖아요. 그런거를 좀 즐겨요. 그런 데 가서 전혀 모르는데 가 가지고 막 내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나면 후련해요. 주로 혼자서 많이 그걸 푸는데, 절대 어울려 가지고 말 마시고 어디 어디 가고 뭐 이런 건 안 해요. (최윤정)

싱글들은 자유로운 자신의 삶을 위해 즐기는 화려한 싱글로서의 이미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외로움과 쓸쓸함 노후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대중 속에서의 심리적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싱글들에게는 혼자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고독, 외로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싱글들은 착한 소비, 노후 대비 저축, 노후 대비 여가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면서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었고, 홀로라서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극복할 수 있는 각자의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30-40대 싱글여성의 의식주생활, 소비 및 여가 생활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신, 관계, 생존, 미래 준비, 자유와 그 이면이라는 5개의 대주제를 찾을 수 있었다. ‘자신’이라는 대주제에서는 오직 ‘나’를 위해, ‘나’를 완성시키고 싶은,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3개의 중주

제를 찾았다. ‘관계’라는 대주제에서는 가족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라는 2개의 중주제를 찾았고, 가족과 더불어서 라는 중주제에서는 ‘가족’을 위해, 아직은 ‘가족’의 그늘에서 라는 2개의 소주제를 찾았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라는 중주제에서는 함께 하는 즐거움, 싱글들끼리의 편안함, 세상과의 소통 이라는 3개의 소주제를 찾았다. ‘생존’이라는 대주제에서는 건강, 안전, 혼자 살아내는 연습 이라는 3개의 중주제를 찾았고, ‘미래 준비’라는 대주제에서는 착한 소비, 노후대비 저축, 노후 대비 여가 라는 3개의 중주제를, ‘자유와 그 이면’이라는 대주제에서는 홀로라서 자유, 자유의 그 이면들 이라는 2개의 중주제를 찾았고, 홀로라서 자유라는 중주제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 홀로이기에 나에 대한 보상 이라는 2개의 소주제를, 자유의 그 이면들이라는 중주제에서는 혼자라서 ‘불안’ ‘싫음’ ‘두려움’, 외로움과 쓸쓸함 극복하기 라는 2개의 소주제를 찾았다. 이와 같이 주제를 찾는 과정을 통하여 싱글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었고,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 봄으로써 인구교육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자신이라는 대주제에서는 30-40대 싱글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오직 ‘나’를 위한 일상생활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중요 가치를 두고 있어서 ‘나’를 완성시키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하며, 남과 다른 개성을 추구하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갖는 것을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싱글 여성들은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 아닌 나 스스로를 위한 외모관리, 오직 자신을 위한 소비, 나만을 위한 공간, 나를 위한 혼자만의 여가생활을 하는 등 오직 ‘나’를 위한 일상생활이 있었다. 또한 나만의 의상 스타일대로 입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주거환경을 꾸미고, 내 스타일대로의 초 간단 식사를 하는 등 자기 기준에 부합한 ‘나’만의 스타일을 지향하는 선택을 하였고, 자기 계발에 투자하고 자기 계발이 가능한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나’를 완성시키고 싶은 욕구를 충족해 나가는 일상생활을 구성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싱글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기호와 선호경향이 강한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 기준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그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자기 자신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선택

앞에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으면서 자신의 스타일대로, 또 ‘나’를 완성시키고 싶은 강한 욕구를 충족해 가면서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싱글의 삶은 결국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떤 ‘나’를 완성시키고 싶은지에 따라 싱글의 일상생활은 매우 다양하고, 자기중심적인 개성을 추구하는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론은 싱글 여성들이 강한 자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의 주장과 표현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Park et al., 1992)를 지닌 것으로도 해석된다.

둘째, 자신이라는 대주제에서 보았듯이 싱글여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개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 주변인들과의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관계라는 대주제에서 보듯이 원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을 위한 소비와 여가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아직도 ‘가족’의 그늘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고 노후를 함께 할 수도 있는 형제자매, 자녀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는 조카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생활을 공유하고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향하면서도 그 안에서는 처지가 비슷한 싱글들끼리의 편안함, 낯선 사람보다 아는 지인 사람과의 접촉을 더 선호하고 편안해 하는 관계 양상도 보이고 있었다. 즉 익숙함 안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은 자신의 삶을 가능한 낯선 타인으로부터 방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관계의 즐거움과 소통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고 있었다. 결국 싱글여성들은 ‘자신’이라는 대주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기만의 세계를 중시하면서도 그 속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관계의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글 여성들의 개성은 매우 뚜렷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원가족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생존이라는 대주제에서는 싱글여성들이 건강과 안전을 챙기며, 앞으로도 계속 혼자 살 수도 있기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려는 모습은 마치 생존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자 싱글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삶을 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또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안전한지 등의 문제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욕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본 욕구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특히 식생활과 주생활, 여가생활 등을 통해서 표출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기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할 때는 싱글 여성의 삶도 행복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싱글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는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고 통합하려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서 함께 방안 모색과 논의가 필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싱글 여성들은 앞으로의 미래에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다는 인식하에, 그리고 혼자인 현재를 살아내기 위해 스스로 살아내는 연습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들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스스로의 선택이든 아니든 다양한 삶의 모습 안에서 수용되어지고 배려되어지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미래 준비라는 대주제에서는 싱글여성들은 미래를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생활필수품 위주의 기본적인 소비를 하는 모습이 있었다. 30~40대 싱글 여성들은 현재의 삶에도 충실하려 하지만 노후대비저축이라든가 노후의 여가를 위해 대비하는 모습을 볼 때 미래의 삶에도 많은 고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독신 생활에 만족한다’ 보다 ‘혼자 살면서 힘든 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Newsis, 2014). 이것은 싱글 여성들의 노후에 대한 사회적, 가족적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싱글 여성들의 안정된 노후의 삶을 위한 노후준비 프로그램, 노후의 싱글 여성들을 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 등 노년기 싱글 여성에 초점을 맞춘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이 필요하다. 노후 준비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여가상품 등에 대한 개발을 통해 싱글 여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자유와 그 이면에서는 30~40대 싱글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서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이다. 특히나 주생활에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한 싱글 여성들은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시간과 혼자만의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행복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소비나 여가생활 등에서는 결혼을 선택한 기혼자들과는 달리 더 쉽게 소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 자유로운 가운데 혼자만의 여가시간을 마음대로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홀로이

기에 나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러한 자유의 삶을 싱글 여성들이 꿈꿀 수 있는 데는 무엇보다 한국의 사회적 변화가 바탕을 이룬다.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향상되었고, 자신만의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여성들은 스스로 의사결정권을 지닐 수 있게 되었으며 지위 또한 상승하였다. 그리고 핵가족화, 출산율의 감소 등 가족의 형태 변화, 전통적인 가족 관계의 변화의 시기를 겪으면서, 싱글 여성들은 남성에게 의존하여 결혼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였다. 왜냐하면 여성 스스로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경제력을 갖추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싱글여성들은 노후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혼자들과 달리 홀로라서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외로움과 쓸쓸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홀로 노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독신 생활에 만족한다’ 보다 ‘혼자 살면서 힘든 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Newsis, 2014). 이것은 싱글 여성들의 노후에 대한 사회적, 가족적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싱글 여성들이 앞으로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고 계속 싱글의 삶을 살아갈 경우에는 싱글 여성들의 노후의 삶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노후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싱글 여성들이 개인의 고독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개인의 고독과 외로움 등 심리적 불안 등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고독사, 푸어 싱글들의 증가를 보면 사회적 개입은 더욱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싱글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도록,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정서적인 네트워크를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가족 정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선, 싱글 여성들의 의식주 생활, 소비 및 여가 생활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에서의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써 싱글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싱글들은 혼자라서 자유롭고 편안하며, 자신에게 좀 더 충실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지만, 가족이 갖고 있는 정서적 안정의 기능은 혼자서 해결되기 어렵고 자신의 원가족과의 관계, 비슷한

싱글들끼리의 관계, 그 밖에 사회적 관계들을 통하여 소통하면서 대체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 또한 자녀 양육과 교육의 의무는 사라진 반면, 노후에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 유지와 부양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후 준비와 대책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오늘날 많은 부분 사회화 되어서 싱글들은 가족이 했던 역할을 어딘가에서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생식가족을 만들 이유가 없게 된 것은 아닌지, 또 가족의 기능들 중 여전히 사회 안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충족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싱글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거리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싱글 여성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은 생애설계교육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인구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싱글 가구의 증가는 국가의 인구 감소의 문제와 함께 각각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60년 한국 인구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인구 5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선 한국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JoongAng Ilbo, 2015). 이러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53조원을 쏟아 부었으나, 출산율은 여전히 1.3명을 밑돌고 있다(Chosun Ilbo., 2014). 따라서 정부에서는 최근 보육환경 개선에 집중되었던 저출산 대책을 결혼 장려 정책으로 변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혼 장려 정책을 위한 우선 과제는 싱글여성들을 이해하려는 노력, 즉 싱글여성들의 결혼생활과 대비되는 실제적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근거로 싱글과 대비되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를 향상시키는 인구교육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예로, 이 연구에서 규명된 싱글여성들의 일상생활의 여러 의미들에서 ‘자신’을 위주로 하는 삶 및 ‘홀로라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로움은 일반적으로 결혼생활을 누리는 기혼자들이 누릴 수 없는 싱글생활이 가진 장점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싱글생활이 가진 장점을 기혼자들의 결혼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결혼생활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인구교육은 결혼의 다른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면서 싱글생활의 장점을 흡수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제시될 수 있다. 기혼자이지만 때로는 “오직 나를 위해 또는 나를 완성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 의식주생활이나

소비 및 여가생활을 누리는 기회를 가지는 결혼생활을 새로운 결혼생활의 이미지로 제시하는 결혼교육이다. 제언하면 싱글생활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결혼상에 대한 교육이 인구교육의 결혼가치관 및 가족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의 콘텐츠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싱글생활의 핵심인 일상생활에 대해 싱글들이 가지는 의미가 기혼자가 가지는 일상생활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 연구의 결과가 인구교육의 중요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청소년과 대학생,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싱글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선행 연구들(Wang, 2010a; Wang, 2010b; Ryu & Wang, 2010)을 고찰하면, 싱글여성은 ‘자기관리를 잘하는 화려한 전문직 여성’이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요약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같은 이미지는 최근 대중매체가 싱글여성에 대한 낭만적 신화로 강화해 온 이미지이다. 대중매체가 강요한 싱글여성의 이 같은 단편적 이미지는 결혼 경험자인 기혼계층은 물론 결혼예비자들인 청소년과 대학생 계층의 결혼 행동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의 혼인율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싱글여성에 대한 단일 이미지를 경계하고, 실제의 싱글여성들의 삶을 분석하는 연구결과가 인구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싱글여성들의 삶의 핵심이 되는 일상생활의 의미들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생존’, 그리고 ‘미래준비’를 위해 이루어져서,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익숙하게 보아 온 자유를 추구하고 화려한 삶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계’와 ‘생존’, 그리고 ‘미래준비’를 위해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모습은 사실 결혼생활의 일상생활과 큰 차별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싱글의 일상생활이나 결혼한 기혼자의 일상생활이나 실제의 삶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실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 연구에서 분석된 싱글여성들이 가지는 ‘자유’를 위한 일상생활의 의미들은 사실은 ‘자유의 이면’의 소주제에서 나타났듯이 혼자인 불안과 두려움 또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상쇄하기 위한 이면을 가진다는 분석 결과는 싱글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가 과잉 일반화 해 온 싱글생활의 허상 또는 단편이 아닌, 실제적인 싱글생활을 인구교육의 교육내용으로 구성하여 제시한다면, 개인의 생애설계를 위한 인구교육의 궁극

적 목적에 이 연구의 결과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연애·결혼·출산 3가지를 포기한 ‘삼포 세대’라 지칭하는 청년 싱글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이같이 결혼하지 않은 싱글뿐 아니라, 돌싱, 홀몸노인 등 1인 가구의 특성이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세련되고 당당한 이미지로 단편화되고 있는 싱글의 이미지를 경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싱글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싱글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국가 인구 감소 등의 원인과 배경,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구정책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원가족 경험이나 관계에서의 경험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다른 영역을 중심으로 한 싱글여성들의 일상생활의 분석 연구가 필요한데, 이는 싱글을 선택하게 되는 경로에서 자주 그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원인들이 역기능적인 원가족 경험과 관계 경험들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분석이 추후 연구에서 분석되면서, 싱글생활의 경로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싱글 여성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싱글 남성의 일상생활은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싱글남성들의 의식주, 여가 및 소비 생활은 어떠한지 그들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Chang, H. S. (2002). A Study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Single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6), 185-195.
- Chang, Y. J. (2000). Psychology for Health Care and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1), 1-11.
- Choi, H. J. (2007). *A Study on the Marketing strategy case for the single woman and the mom women customer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Chosun Ilbo. (2014). Retrieved February. 28, 2014, from <http://www.chosun.com/>
- Donga Ilbo. (2015). Retrieved April 24, 2015, from <http://www.donga.com/>
- Hong, H. R. (2007).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tory Brand “Mon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Y. (2013). Housing Consciousness and Needs of Single Woman Household for the Small-sized Rental Housing Development - Focused on the Residents of Seoul, Incheon, and Gyeonggi-.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4(4), 109-120.
- Kim, B. R. (2013). *Structural relations of convenience food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dietary style : focusing on singles in metropolitan area of Korea, Japan and Chin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L. (2014). *A study on planning of serviced residence as housing: focusing on gold single househol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L. J. (2007). Leisure Experiences of Unmarried Women. *The Korea Contents Society*, 9(1), 359-365.
- Kim, S. J., & Ahn, H. J. (2009). Finding business opportunities in trends code. Seoul: Creating good books.
- Kim, S. Y. (2003). *New Housing-cum-office for Single Household in the 24-hour Downtow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A., Lee, B. C., & Youn, H. W. (2014). A Study on Single People's Satisfaction of Convenience Foods and Re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Food-related Lifestyle. *Tourism & Leisure Research*, 27(1), 433-452.
- Kyunghyang Shinmun. (2015). Retrieved April 26, 2013, from <http://www.khan.co.kr/>
- Jang, W. S. (2004). The Analysis of Everyday Life as a Social-Cultural Education Method. *Social Studies Education* 43(4), 167-187.
- Jeong, D. J. (2009). *A Study on the Measure of Audience Development Surveying the Status Quo of Watching Performing Arts : Focused on the Leisure Activities of*

- Singles-by-Cho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JoongAng Ilbo. (2015). Retrieved July 9, 2015, from <http://joongang.joins.com/>
- Lee, M. S. (2002). Depth interview study.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8(1), 215-241.
- Lee, S. J., & Hwang, S. J. (2003). A Study of the Lifestyle for Single Professional Female. *Journal of Human Life Sciences*, 6, 267-281.
- Mo, H. J. (2007). *The politics of consumption of single career women in their 20s and 30s with advanced degre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usei University, Seoul, Korea.
- Newsis. (2014). Retrieved December 16, 2014, from <http://www.newsis.com/>
- Park, C. U., Park, M. H., & Song, M. Y. (1992).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lifestyle of married women and unmarried wome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2), 75-90.
- Park, H. W., & Kim, Y. S. (2006). A Study on the Effect of Shopping Orientation and Fashion Orientation on Imported Cosmetics Repurchase Intention of Single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6(5), 150-162.
- Ryu, K. H., & Wang, S. S. (2010). The images of unmarried single women as seen from the viewpoint of married men and women. -Focusing on stereotypes of unmarried single wome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3), 37-54.
- Seo, W. S., & Baek, J. A. (2006).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Lifestyle concepts of Customer's Purchase Attitude: Brand preference of Family Restaurant Customers. *Tourism & Leisure Research*, 18(1), 161-178.
- Seo, S. H., Kim, J. S., & Kum, U. Y. (2005). Theory of consumer behavior. Seoul: ParkYeongsa.
- Sim, Y. (2003). 'Gorgeous Single' that is no longer familiar. *Advertising Information*, 271, 24-29.
- Sisaweek. (2015). Retrieved July 16, 2015, from <http://www.sisaweek.com/>
-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5). Retrieved July 27, 2015, from <http://www.korean.go.kr/>
- Wang, S. S. (2010a). A Study on the Image of Single Women reflected to the Teenager's Recogni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6(1), 275-303.
- _____ (2010b). The Image of Single Women with University Students from a view of the Lifelong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3), 261-287.
- Wang, S. S., & Lim, Y. M. (2014). The effects of population education on the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4), 147-164.
- Wikipedia. (2015). The Free Encyclopedia, from <http://wikipedia.org/>
- Yang, J. Y. (2007). *A Study of Singles' Tourism Behavior according to their Life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Yang, J. Y., & Lee, T. H. (2009). A Study on Single Behavior Types by Their Lifestyle and Decision difference.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Conference Proceedings*, 7, 414-427.
- Yang, O. K. (2000).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oncepts of Family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6, 69-99.
- Yoon, S. Y. (200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ingle People Time Use and Leisure Behavior : A comparison of single people an unmarried group and a married group.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6), 209-217.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30-40대 싱글여성의 의식주생활, 소비 및 여가 생활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신, 관계, 생존, 미래 준비, 자유와 그 이면과 같이 5개의 대주제를 찾을 수 있었다. ‘자신’이라는 대주제에서는 오직 ‘나’를 위해, ‘나’를 완성시키고 싶은,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3개의 중주제를 찾았다. ‘관계’라는 대주제에서는 가족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라는 2개의 중주제를 찾았고, 가족과 더불어서 라는 중주제에서는 ‘가족’을 위해, 아직은 ‘가족’의 그늘에서 라는 2개의 소주제를 찾았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라는 중주제에서는 함께 하는 즐거움, 싱글들끼리의 편안함, 세상과의 소통 이라는 3개의 소주제를 찾았다. ‘생존’이라는 대주제에서는 건강, 안전, 혼자 살아내는 연습 이라는 3개의 중주제를 찾았고, ‘미래 준비’라는 대주제에서는 착한 소비, 노후대비 저축, 노후대비 여가 라는 3개의 중주제를, ‘자유와 그 이면’이라는 대주제에서는 홀로라서 자유, 자유의 그 이면들 이라는 2개의 중주제를 찾았고, 홀로라서 자유라는 중주제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 홀로이기에 나에 대한 보상 이라는 2개의 소주제를, 자유의 그 이면들이라는 중주제에서는 혼자라서 ‘불안’ ‘싫음’ ‘두려움’, 외로움과 쓸쓸함 극복하기 라는 2개의 소주제를 찾았다. 이와 같이 주제를 찾는 과정을 통하여 싱글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었고,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 봄으로써 인구교육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 논문접수일자: 2015년 11월 17일, 논문심사일자: 2015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12월 24일